

민 주주의 사회로의 초대

박 원 순



박원순 변호사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국가보안법 연구』,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외 다수가 있다.

여러분들! 뵙게 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꼭 시민운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 전반에 걸친 논의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강의라도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 조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토론을 합시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대학 언론인이잖아요. 대학언론인은 훨씬 더 도전적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발제 없이 처음부터 토론으로 시작합시다. 노무현대통령이 검사들과 했던 토론회는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평등한 차원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할 거 없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수장 준비가 안 되어 있나 봅니다. 뭐든지 첫 질문이 중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제3의 섹터, NGO

그러면 일단 먼저 제가 운을 떼지요. 과거에는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엔 시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쯤 되시는 분들은 대학 또는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그리 많지 않았습나다. 먼서기 같은 공무원을 하거나 어디 가서 장사를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했습니다. 이런 것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3의 섹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NGO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Non Profits, 비영리단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제3섹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조사해 보니 미국 전체 GDP의 7%가 NGO나

NPO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보니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체 산업종사자 수의 0.9%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시민사회의 NGO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세대는 그러니까 197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80년대 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문제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모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생각만 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사회는 거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GDP의 7%가 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 되는 미국을 보면 어떤가요? 잘 되고 있습니까? 비영리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GDP의 7%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미국사회의 정책이 잘 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라크 전쟁만 보더라도 미국의 정책결정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도 그 지경이지요. 그만큼 아직 발전의 여지가 더 있는 거라고 역설적으로 볼 수 있지요.

과거 정부가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정부를 견제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시장 역시 탐욕적이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권력을 쥐게 되면 남용하기 마련이니까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탐욕적인 시장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물론 정부가 시민단체를 탄압하기도 하고 그래서 긴장관계가 형성 되는 때가 많지요. 그러나 때로는 협력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싸우는 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들

지금 여기, 이곳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인데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폭력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군사정권이었을 때인데, 국민의 인권을 엄청나게 탄압했고 국가자체가 폭력 그 자체인 때가 있었습니다. 만일 지금의 정부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정부를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타도해야겠죠? 그런 폭력적인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선배들이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했고, 목숨을 바치기도 했던 겁니다. 저도 그런 세대의 한 사람이죠. 지난 75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사복경찰들이 들어와 학생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도서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진압을 하면서 다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장면을 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까? 그래서 저도 내려가서 같이 데모를 하다가 남부경찰서로 잡혀가서 구속이 되었고, 학교도 쫓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몇 달을 지냈는데, 그 때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감옥에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옥이라는 곳이 완벽하게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선배들이 넣어준 책들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향후 10년 동안 읽을 책을 저는 감옥에 있던 그 수개월동안 다

읽었습니다. 그 때 읽은 책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젊은 때 했던 독서는 뭔가 큰 인상과 감동을 남기기 마련이죠. 사실 저는 그 때 학교를 그만둔 이후 다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딱 4~5개월 다니고 학교를 못 다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고졸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대학 캠퍼스 생활은 감옥에서 있었고 저는 지금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읽었던 책, 그때 만났던 제소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감옥에 한번 가 보시지요. 후회 안할 겁니다(웃음).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복학을 안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고 지냈지요. 그것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배를 타고 장항에서 군산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군산에 도착해 부두에서 내리려고 앞을 보는데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바다로 뛰어내릴 충동을 느꼈겠습니까? 경찰관이 장발단속을 하려고 바리깡을 들고 앞에 딱하니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장발이고 머리에 물들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 때 이랬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감옥 갔을 겁니다. 그 때는 자기 머리를 마음대로 기르거나 물도 못 들이는 시대였습니다. 경찰관들이 바리깡으로 쥐 파먹듯이 머릴 엉망으로 잘라 버리면 할 수없이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경찰관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댄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때 고생했던 선배들에 대해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유가 공짜로 생긴 것은 아니지요. 그 많은 희생과 노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머리를 기르고 노래를 부르고 생각하고 활동할 수 가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의 작은 권리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그 때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습니다. 총칼로 쿠데타 일으켜 대통령 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보고 우리가 ‘당신은 우리 대통령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바꾼다든지 정부를 무너뜨리는 식의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100% 잘 합니까? 정부가 언제나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견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에서 등록금 인하 투쟁하고 있는데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여러분 등록금 인하 투쟁 하면 안 됩니다. 등록금은 인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철폐되어야 하는 겁니다.(웃음) 여러분, 유럽의 예를 보십시오. 독일과 프랑스 어느 나라의 대학에서 등록금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안 가봐서 잘 모르나 본데 꼭 한번 가서 독일, 프랑스 대학에서 등록금을 내는지 물어보십시오. 사실 나라에서 등록금뿐만 아니라 입학증을 가져오면 오피스텔 하나쯤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웃음) 여러분 제가 웃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헌법의 나라의

근본법입니다. 하위법은 그 법을 준수해야지요. 정부는 예산을 만
들어 헌법이 요구하는 대로 집행해야지요. 국가에서 최소한의 인
간다운 생활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집 장가
가면 집이 필요하죠? 그럼 집은 어떻게 얻지요? 누가 공짜로 줘
니까? 전세를 얻어야 하겠지요? 여러분이 무슨 돈으로 전세를 얻
습니까? 몇 천 만원 할 텐데 부모님들이 보태줘야 하겠지요? 부모
님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자식들 시집 장가보내고 집까지 마련
해주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자식 낳으면 그 자식도 키워줘야 하
는 겁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래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들, 집은 정부에서 하나씩 주면 좋겠죠? 과장된 말이 아니라 여
러분들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존엄
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주거권을 찾아보세요. 영
어로 right to housing이라고 찾아보세요. 이런 권리에 대해 온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를 보면 전체주택의 70%가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정부나 지
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지어서 싸게 임대해 주는 겁니다. 독일
이나 영국 역시 20%가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5채 중에 한
채는 공공주택이어서 싸게 임대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나라에서 정부 주택에 세 드는 거 봤습니까? 아주 영세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세주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평생을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집을 살동말동 한데 사실 그것도 투기를 하지 않
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세상이 어디 있
습니까?

국가에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의료권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베니스라는 도시를 아시죠? 베니치아 말입니다. 베니스와 한 시간 정도 거리에 Padova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0여 년간 교수생활도 한 중세도시로서 참 예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 보셨나요? 'Padova사건'이라고 들어 봤어요? 제가 그 유스호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때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여서 차를 타고 식구들이랑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니까 유스호스텔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 침대가 2층이었는데 침대가 꽤 높아서 아이들은 밑에다 재우고 저는 2층에 올라가서 잤습니다. 자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질어질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뇌 골절에 척추3번 골절이라고 하더군요. 3일 만에 정신이 깨어나 눈을 떠 보니까 시립병원이라고 하는데 이태리 대리석이 꼭 깔려있고, 식사는 메뉴대로 다 나오고 후식도 나오고, 자원 활동가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사고 안 났으면 큰일 날 뻔 했지요.(웃음) 그런데 이태리 병원이 어떻게 진찰을 하는 것인지 입원한 지 2주가 되었는데도 퇴원시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멀쩡해져서 걸어 다닐 만한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으려고 하나 걱정이 되어서 억지로 나가겠다고 우겨 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비 얼마나 나왔을 거 같습니까? 공짜입니다. 가보세요. 여행가서 사고는 나지 말고 그냥 한번 들러서 '이곳에 입원해 있으면 돈을 내야 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있지만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환자부담금도 너무 많습니다.

밑 빠진 독

국가에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교육, 주거, 의료 이것 뿐만입니까? 실업수당도 나와야지요. 또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 기 낳으면 지금은 부모님이 봐주시는데 그런 것도 사회복지의 하나인 보육시스템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육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라가 모두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보육시스템 하나는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오피스텔 줘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61조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공적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적자금이 됩니까? 161조원이 IMF이후 바로 은행들이 부실해져 금융권 구조조정을 하면서 쓴 돈입니다. 그럼 왜 돈 많은 은행이 부실해 졌을까요? 은행이 크게 부도를 맞았으니까 그렇겠죠. 한보철강이라는 한 기업에 제일은행이 무려 1조 1천억을 융자해줬습니다. 참여연대가 소액 주주운동 하고 그랬지요. 이렇게 대기업에 융자를 줬다가 다 떼이니까 은행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밀어 넣은 돈이 공적자금입니다. 여러분 대우그룹 아시죠? 그 그룹이 망하면서 우리국민들이 1인당 55만원의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우 때문에 모두 55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출된 돈이 '161조원'입니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기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대강 알면서 왜 나라 예산 세금엔 신경을 안 씩니까? 결국은 자기 주머니의 돈이 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금 얼마나 내셨나요? 세금 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올 때 버스 안 탔습니까? 그 버스 요금에도 붙어 있고요 커피, 생수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료수에 모

두 소비세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바보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61조원'이 날아갔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은 '40조원'입니다. FX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은 바로 차세대전투기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시키자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국방을 튼튼히 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그것도 미국의 F15인가요? 그 비행기를 반드시 사야 되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북한에 갔었습니다. KBS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참관인 자격으로 북한에 가게 되었는데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움직이는 게 없는 겁니다. 기름이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움직임도 없이 깜깜한 겁니다. 묘향산까지 갔는데 고속도로는 잘 되어 있지만 그 위에 움직이는 자동차는 왕복 중에 겨우 2대 만났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표지에 아주 상징적인 인공위성 사진이 났는데 야간에 찍은 그 사진에 우리 남한과 일본, 만주는 흰한테 북은 깜깜한 겁니다. 북핵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지만 저는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를 상대로 도발을 할 수는 있지만 전쟁을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북을 상대로 우리가 과연 FX까지 도입해야 하는가, 도입하더라도 미국의 보잉사 것을 사야 하는 가에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2030년이 되면 단종이 된다는데 그것을 40조원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는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원' 이건 뭐냐면 경부고속전철입니다. 지금 경부

고속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86년인가 87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지어져서 그 부실의 규모를 계산해 봤더니 10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이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부실하게 공사한 곳을 고쳐서 다시 하려니 돈이 더 드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고쳐서 공사를 하는 것이 나을 지를 말합니다. 그 때 10조원의 부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화호' 알죠? 이거 만드는 데 5천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호수로 변했잖아요.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데 5천억이 든답니다. 오늘 밤새 이야기해도 못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 웹 사이트 들어가 보면 '밑 빠진 독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기관이 예측 없이 공사를 벌이거나 사업을 했다가 그냥 날린 대표적인 사례들을 죽 정리해 두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새잖아요? 정부에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등록금 계산해볼까요? 학생을 100만 학도라고 하고 등록금을 300만원이라고 치면 3조원입니다. 오피스텔 한 채에 얼마죠? 얼마지 몰라요? 그걸 모른다니 여러분들은 오피스텔 하나씩 받을 자격이 없네요. 아마도 그 낭비되는 세금을 제대로 잘 아낀다면 여러분들의 등록금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한 채 주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너무 꿈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지나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사회가, 정부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건물하나 지으면 천억이에요. 정부에서 그렇게 쓸 때 없는 건물을 많이 짓고 있어요. 공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분 청주공항 왜 필요합니까? 청주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30분인데 굳이 국제공항이 필요할까요? 내렸다 났다 하면 시간 다 갈 텐데 말입니다. 국내공항이면 좋지만 국제공항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청주공항이 지금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주에 공항이 있는데 군산에 왜 만들었을까요? 전주에서 군산까지 30분 거리입니다. 이런 낭비되는 비용을 딴 걸로 쓰면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등록금 없애고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주고 의료비용도 완전히 없애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까? 나라종금사건 보니까 도대체 뇌물 안 먹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분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25%가 형사피의자로 기소되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보다 좋아 진 겁니다. 옛날 전두환·노태우는 몇 천억씩 먹고 감옥 간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지금은 설마 그렇게까지는 못하지요? 긴 안목에서 보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9시뉴스 틀어보면 ‘누가 구속되었다’ 그런 이야기만 들리는데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야겠지요? 제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대담도 좀 하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셔야죠(박수). 이제는 여러분이 질문 좀 하세요. 첫 번째 질문 하는 게 어렵습니다.

질문: 만약에 국가가 학비나 무상주택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박원순: 지금 제가 세금 더 안 내고 어디서 세원이 나오는지를 이야기 해줬잖아요. '161조원'이면 이 모든 것을 커버하고 남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까봐서 제가 계산한 겁니다. 물론 국가가 사회복지 비용을 많이 쓰려면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야죠. 예컨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어 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니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으로 조금 돌아가서 사회복지가 조금 못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권익과 복지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유럽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거 다 내면서 받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 낭비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들이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사회단체에 가서 활동을 하든지 회비라도 내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도 SK가 1조원 이상 분식회계 했다고 하잖아요. 경기가 나쁜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이처럼 기업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게 경영하지 못한 것들이 원인일 수가 있지요. 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검은돈이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엔론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분식결산 이런 게 없지는 않지만 우리처럼 심하지는 않지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증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증권이라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장부를 보고 손익계산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다 가짜로 한다면 시장의 기초가 흔들리고 나라의 근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증권시장을 운영할 기본

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SK처럼 큰 기업이 이렇게 속이고 있으니까 딱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청년실업이 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100년은 취직 못합니다. 지금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국민의 수준대로 그 사회가 되는 겁니다. 맨날 부패한 정치인이 감옥에 갔다가 몸 아프다고 가석방되고 또 얼마 후 사면 받아 나오고 그리고 또 밀실공천에 의해 다시 출마해서 돈 쓰고 명함 나눠주면 또 국회의원으로 찍어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은 낙선시켜야죠. 또 질문해 보세요.

질 문 :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집도 주게 되면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국가의 수입도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박원순 :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못해 드립니다. 제가 정부의 책임자도 아니고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따져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사회복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복지라는 것이 자본주의 경쟁에서 탈락된 소외된 소수자를 위해서 주는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생산적 복지’라는 말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복지는 일방적인 것이지 대가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수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받기만 기다리고 있겠어요? 물론 복지가 너무 잘되면 그렇게 될 우려가 있죠. 스웨덴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더 많은 예산이 복지 분야에 쓰여져야 합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복지가 GDP의 5%도 안 됩니다.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전체 예산의 20%는 사회복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전 세계 135위라는 겁니다. OECD 회원 국가 중에 10대 교역국에 들어가면서 복지는 아프리카 웬만한 나라보다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질 문 : 강연을 들으면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한국의 복지 상황에 개선 방법과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돈만 준다고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원순 : 제가 예를 극단적으로 들어서 그 쪽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사회복지라는 것을 지금 쉽게 얘기하기 위해 돈으로 환산을 해 본 것입니다. 쉽게 교육시스템을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을 못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무 형편없는 곳이 아닌 일정한 기준에 맞는 곳에서 살아야겠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또 여성들이 능력이 있는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적인 최소한의 기준, 이른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이라는 최저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이 만불이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 사회복지라는 것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사회복지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질 문 : 말씀하신 것들에 대부분 공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박원순 :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직자로 간다던지 기업으로 가서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올바르게 경영을 하는지 감시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쪽으로 한꺼번에 몰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NGO로 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사실 참여연대를 보더라도 월급이 80만원이고 200%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오고 싶어요? (아니오) 월급이 너무 적지요? 월급을 적게 줘도 이 곳에 저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조디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성운동가가 97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도 1977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리고베르타 멘추라는 과테말라 여성은 원주민 인권운동을 하다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받고 싶으면 NGO에 취직하십시오. 물론 농담입니다. NGO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회와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자기헌신과 희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보람찬 길입니다. 다른 곳에 가도 사실 200만 원 이상 받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농담이지만 NGO에 있으면 탄 사람들이 밥을 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월급을 좀 적게 벌면 배우자는 돈 좀 잘 버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웃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간사들끼리 눈이 맞아서 결혼 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여기저기에서 밥 사주고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시민단체에서 국회에 청원했던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인데 정말 좋겠지요.

여러분 대기업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 여기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뒤로 대리가 있습니다. 과장이 그 뒤에 앉고 또 그 뒤로는 차장 부장 상무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 이상은 다른 별도의 방이 주어지지요. 여러분 뒤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월급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NGO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NGO도 치열합니다. 제가 일하는 ‘아름다운 재단’도 간사를 모집 중인데 대부분이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NGO에서도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더운 날 열심히 강의 들으신 분들은 1차 시험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자격은 있죠?

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91년에 영국에 런던 스쿨오브이코너믹스(LSE)라는 곳에서 국제법을 공부했고 그 다음엔 미국에 가서 하버드 로스쿨에서 객원연구원을 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학생들은 뭘 하고 있을까? 중국의 북경대학 학생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동경대학 학생들은 뭘 고민하고 있을까?’ 말입니다. 이들이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2003년 이 모든 이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런던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유고슬라비아 아시죠? 유고슬라비아에서 온갖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ethnic cleansing, 즉 인종청소로 여성들 2만 명을 강간한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 끔찍한 상황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의 난민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런 얘기들이 영국의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언론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멀리 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영국기자들은 현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휴머니스틱한 바탕을 가지고 현장을 취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은 현장에 안가고 글을 쓰잖아요. 외신보도 감시부터 해야 되요. 정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뉴욕타임즈 메인기사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주로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사람들은 전 세계가 안방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떨습니까? 매일 지지고 볶고 하는 국내기사 아닙니까. 외신 대부분이 외국에 있는 통신사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반도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를 경영할 능력을 미국사람, 영국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뒷북치고 남 뒤나 따라가고 있으니 앞서가기 힘들지요. 앞서간다는 뜻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잘 살아라’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처럼 인도주의적 리더들이 여기서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으로 진출하는데 뭐가 고민입니까? 영어가 고민입니까? 영어 고민할거 없습니다. 외국 가서 활동하면 다 통합니다. 영어를 못해서 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번 여름에 용감하게 나가보세요. 여행을 다니다가 제네바에 들리게 되면 그곳에는 유엔기구들 많습니다. 거기 가서 용감하게 신청해서 자원봉사를 해 보십시오. 여행 경비 싸게 갈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유럽 갔다 왔는데 비행기가 아주 넓고 좋아요. ‘사스’ 때문에 여행객이 줄어든 거지요. 이때가 호기입니다. 인명이 재천인데 하늘에 맡기고 여행하는 겁

니다.(웃음)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간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
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지요. 이 짚 이야
기하면 전기가 통해야 하는데 더워서 그런가요.

질 문 :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돈을 어디에 썼나요?

박원순 : 아까 이야기 한 곳에 썼지요. 물론 정부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현대국가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정부가 오죽
돈 쓸 곳이 많은가요. 다만 낭비의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국방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방예산이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20%가 넘습니다. 이 과도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실 평화운동이 필요하구요. 남북한 군대를 합치면
60만 명쯤 됩니다. 북도 굶어 죽으면서 그러고 있으려니 얼마나
미칠 노릇이겠습니까? 남북이 서로 합의를 해서 양쪽 30만씩 반을
줄이면 남북이 다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신뢰를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래서 저는 햇볕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신뢰를 쌓아
야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을 운영하는데 있
어서 혁신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국세
청 재정혁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접대비로 거의 1년에 4~5조원
정도가 쓰이고 1조 8억 원이 룬싸롱에서 사라집니다. 주로 고급양
주 90%가 룬싸롱에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접
대하는 사람이나 접대받는 사람이나 다 피곤한 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외국의 위스키회사에서는
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싼 술들은 외국에서 잘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낭비입니다. 이렇게 비싼 술을 가지고 폭탄주로 마시잖아요. 또 여러분들,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음식쓰레기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전거 타면 기름을 엄청나게 막을 수 있고 도시환경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다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 줍니까? 여러분들 자는 사이에 누가 와서 음식 해 놓고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밥상은 직접 차려서 먹어야 해요. 우리사회를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누군가 해주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 가서 짧게 3~6개월만이라도 인턴활동을 해보는 것 좋습니다. 예컨대 아름다운 재단이나 참여연대 같은 곳에 가서 할 수 있겠지요? 심지어는 6개월 인도여행 경험들까지도 나중에 기업에 취직하거나 외국유학을 가면 자신의 활동사항으로 참고가 됩니다. 여행을 간다는 건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1년 동안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을 일단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여행과정에서 새로운 역사와 인물을 체험하고 만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죠. 지금 많은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할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도전을 해 보십시오. 용기와 희망을 갖고 도전해 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